제7강 공자의 천하 주유
(1교시)

◆ 노자와 만난 공자

※학습목표: 공자의 생애를 살피고, 그를 매개로 춘추시대 전체를 이해한다.

▲공자의 천하 주유 암시 및 장성한 외모
『희자(僖子)가 죽자 의자는 노나라 사람 남궁경숙(南宮敬叔)과 더불어 공자를 찾아가 예를 배웠다. 이 해에 계무자(季武子)가 죽고 계평자(季平子)가 대를 이어 경(卿)의 자리에 올랐다.
공자는 가난하고 천하였다. 커서 일찍이 계씨(季氏)의 위리(委吏)로 있을 때, 그의 저울질은 공평하였고, 그가 직리(職吏)의 일을 맡고 있을 때 가축은 번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사공(司空)이 되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노나라를 떠났다. 제(齊) 나라에서 배척되고, 송과 위(衛) 나라에서 쫓겨나고, 진(陳)과 채(蔡) 나라 사이에서 곤궁에 빠지자 이에 노나라로 되돌아왔다. 공자는 키가 9척 6촌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그를 '키다리'라고 부르고 그를 괴이하게 여겼다. 노나라가 다시 그를 잘 대우하니 이에 노나라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공자의 천하 주유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공자는 외모가 특이했다. 키는 2미터가 넘고, 머리는 짱구에, 삐드렁니였다.

▲주나라
『노나라 사람 남궁경숙이 노나라 군주에게 말하였다. "공자와 더불어 주(周)나라에 가기를 청합니다." 노나라 군주는 그에게 수레 하나, 말 두 필, 시자 한 명을 주어 주나라에 가서 예를 묻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때에 노자(老子)를 만났다고 한다. 공자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때, 노자가 그를 송별하며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부귀한 자는 사람을 전송할 때 재물로써 하고, 어진 자는 사람을 전송할 때 말로써 한다고 합니다. 나는 부귀하지 못하나 인자(仁者)라고 자처하기를 좋아하니 다음 말로써 그대를 전송하겠습니다. '총명하고 깊게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데 이는 남을 잘 비판하기 때문이요,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몸이 위태로운데 이는 남의 결점을 잘 지적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녀 된 자는 아버지뻘 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의 신하된 자는 임금 앞에서 자기를 치켜세우지 않는 법입니다.'" 공자가 주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니 제자들이 더욱 늘어났다.』
-여기서의 주는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주가 아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주는 이미 하나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주라 불렀다.
-노자는 이때 국립도서관정 정도의 직위에 있었다. 노자의 말뜻은 조심스럽게 살라는 맥락이다.
-초나라는 예술적인 사람이 많은 나라다. 노자도 초나라 사람으로 보인다. 공자는 주나라에서 내려오는 예의 복원을 평생의 과제로 삼은 사람이었고, 초나라 사람들은 그 주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

www.artnstudy.com

참고자료

老子(BC 6세기경) 도가의 창시자

▲제나라와 노나라

『이때에 진 평공(晉平公)이 음탕하였으므로 육경(六卿)이 권력을 잡고 동쪽으로 제후들을 공격하였다. 초영왕(楚靈王)은 군대가 강하여서 중국(中國)을 침략하였다. 제나라는 대국으로 노나라와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 노나라는 약소하여 초(楚)나라에 붙으면 진(晉)나라가 노하였고, 진(晉)나라에 붙으면 초나라가 침공하였고, 제나라를 경계하지 않으면 제나라 군대가 노나라를 침략하였다.

노 소공(魯昭公) 20년, 공자는 나이가 서른이 되었다. 제 경공(齊景公)이 안영(晏嬰)과 함께 노나라에 갔는데,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옛날 진 목공(秦穆公)은 나라도 작고 외진 지역에 위치하였지만 패자(覇者)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진(秦)나라는 비록 나라는 작아도 그 뜻이 원대하였고, 비록 외진 곳에 처하였어도 정치를 베푸는 것이 매우 정당하였습니다. (목공은) 백리해(百里奚)를 몸소 등용하여 대부(大夫)의 벼슬자리를 내리고 감옥에서 석방시켜 더불어 3일간 대화를 나눈 뒤 그에게 정사를 맡겼습니다. 이로써 천하를 다스렸다면 (목공은) 왕(王)도 될 수 있었는데, 패자가 된 것은 오히려 대단치 않은 것입니다." 경공은 매우 기뻐하였다.

공자가 35세 되었을 때, 계평자(季平子)가 후소백(郈昭伯)과 닭싸움 끝에 노 소공에게 죄를 지었다. 소공이 군대를 이끌고 평자를 공격하자 평자는 맹씨(孟氏), 숙손씨(叔孫氏)와 연합하여 3가(家)가 함께 소공을 공격하였다. 소공의 군대는 패해서 제나라로 달아났고, 제나라는 소공을 간후(乾侯)에 거하도록 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노나라가 어지러워졌다. 공자는 제나라로 가서 고소자(高昭子)의 가신이 되어 경공(景公)과 통하려고 하였다. 공자는 제나라의 태사(太師)와 음악을 토론하였는데 "소(韶)" 음악을 듣고 그것을 배워,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을 정도로 심취하자 제나라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였다.』

-제나라는 공자가 처음으로 입신하려고 했던 나라이다.

- 끝부분의 음악에 관한 얘기는 무계통 자식의 재능이다.

▲정명론定命論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정명론이다. 이름·명분을 바로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놓인 사람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본질에 합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구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너진 주례를 복원시키려는 보수적 사고라고 한다. 또한 사회가 준 자리의 역할은 상대적인 것이고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실체화하여 목적론적으로 사유했다고 말한다. 즉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철학적으로 본질주의다**.

-하지만 본질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은 모든 면에서 가능하지 않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

www.artnstudy.com

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의 주례도 이처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www.artnstudy.com

(2교시)

◆ 공자의 편찬 작업과 천하주유

※학습목표: 공자의 생애를 살피고, 그를 매개로 춘추시대 전체를 이해한다.

▲제나라에서의 입신 실패

『경공이 말하였다. "옳은 말이오! 만약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은들 내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소!" 다른 날 경공이 다시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가 말하였다. "정치의 요점은 재물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 경공은 기뻐하며 장차 이계(尼谿)의 땅에 공자를 봉하려고 하였다. 안영이 나서며 말하였다. "무릇 유학자는 말재간이 있고 융통성을 잘 부려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거만하고 제멋대로 하니 아랫사람으로 두기 어려우며, 상례를 중시하여 슬픔을 다한다며 파산까지 하면서 큰 장례를 치르니 그들의 예법을 풍속으로 삼기 어렵고, 도처에 유세 다니며 관직이나 후한 녹을 바라니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현자(賢者)가 사라진 이래로 주(周) 왕실이 쇠미해졌고 예악(禮樂)이 붕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공자는 용모를 성대히 꾸미고 의례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세세한 행동규범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은 몇 세대를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으며 평생을 다해도 그 예를 터득할 수 없습니다. 군주께서 그를 채용하여 제나라의 풍속을 바꾸려고 하신다면 이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후 경공은 공자를 공손히 접견하였으나 다시는 예를 묻지 않았다. 훗날 경공이 공자를 붙잡고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계씨(季氏)와 똑같은 지위로 대우하는 것은 할 수가 없소"라고 하며 공자에게 계씨와 맹씨(孟氏) 중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었다. 제나라 대부들이 공자를 해치려고 하였는데 공자도 이 소문을 들었다. 경공이 말하였다. "나는 늙었소. 그대를 등용할 수가 없소이다." 이리하여 공자는 드디어 그곳을 떠나서 노나라로 돌아왔다.』

-법가 적이고 실용적인 안영이 볼 적에 정명론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공자를 계씨와 맹씨 중간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었다는 것은, 공자가 관직에 오르지 못했지만, 상당한 명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자의 학식과 신화

『공자의 나이 42세 때, 노 소공이 간후에서 죽고 뒤를 이어 정공(定公)이 즉위하였다. 정공 5년 여름, 계평자가 죽고 환자(桓子)가 자리를 이었다. 계환자(季桓子)는 우물을 파다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얻었는데 그 안에 양(羊)과 같은 것이 있었다. 공자에게 "개를 얻었다"라고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은 양입니다. 제가 듣기로 산의 요괴는 기(夔)와 망량(罔閬)이고, 물의 요괴는 용(龍)과 망상(罔象)이며, 흙의 요괴는 분양(墳羊)입니다."

오(吳)나라가 월(越)나라를 공격해서 수도 회계(會稽)를 격파하여 수레 하나에 가득 찰 만큼 큰 해골을 얻었다. 오왕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공자에게 물었다.』

-오왕이 사자를 보내어 공자에게 물었다는 내용에서 공자가 이미 학식에 관한한 중국 전체에서 으뜸이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나오는 내용은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는 서양의 mythos로서 공자가 mythos를 훤히 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공자는 이를 신화로 생각하지 않았다. **공자에게 mythos는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이었다.**

www.artnstudy.com

▲노나라의 부패와 공자의 편찬

『환자(桓子)가 총애하는 신하 중에 중양회(仲梁懷)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호(陽虎)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양호는 중양회를 내쫓으려고 하였으나 공산불뉴(公山不狃)가 그것을 말렸다. 그해 가을, 중양회가 더욱 교만해지자 양호는 그를 체포하였다. 환자가 노하자 양호는 환자마저 가두었는데, 더불어 맹약을 한 연후에야 그를 풀어주었다. 양호는 이로 인해서 더욱 계씨(季氏)를 가볍게 여겼다. 계씨 또한 분수를 모르고 공실(公室)보다 지나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배신(陪臣)이 국정을 잡은 꼴이 되었다. 이에 노나라에서는 대부(大夫) 이하 모두가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을 편찬하였다. 제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먼 곳에서까지 찾아와 글을 배우지 않은 자가 없었다.』

▲공자의 제자들과 주유의 시작

『공산불뉴는 계씨의 비(費)에서 계씨에게 반기를 들고, 사람을 시켜 자기를 도와달라고 공자를 불렀다.』

-공자에게는 3명의 중요한 제자가 있다. **안회, 자로, 자공**이다. 안회는 공자가 인정한 후계자였고, 자로는 공자보다 정치적 판단력이 좋은 제자였으며, 자공은 언변이 뛰어나고 상인 기질이 강한 부자였다.

-이후의 내용은 공자의 정치적 업적이다. 14년간의 주유는 그의 나이 50세 중반에 시작된다.

참고자료

사마천 『공자세가·중니제자열전』황지원역, 예문서원

www.artnstudy.com